

해남군, 국립에코식물원 적극 유치 나섰다

군, 두륜산 도립공원 등 최적 조건 내세워 알리기 총력 산림청, 1000억 규모 난대식물원 조성...올해 입지 선정

해남군이 국립에코식물원 유치에 적극 나섰다. 에코식물원은 산림청 국비사업으로 2020년부터 2025년까지 난·아열대 식물종 보존·연구기반과 생태관광 기능을 갖춘 난대식물원을 조성하게 된다. 올해 입지가 선정될 예정으로 500억~1000억원의 규모가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이다. 해남군은 기후변화에 따른 한반도 아열대화의 관문이자 대규모 유희지를 보유하고 있어 난대식물원 입지 최적임을 내세우며 본격적인 유치경쟁에 뛰어 들었다. 연평균 기온 14℃인 해남은 난대림의 보고로 불리는 두륜산 도립공원 등 천혜의 자연조건을 보유하고 있다. 아열대 작목 재배 면적 또한 전남도 전체 면적(227ha)의 절반에 가까운 123ha

를 차지한다. 200ha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식물원 조성 부지 또한 오시아노 관광단지 와 대규모 국공유림 등 유희지가 충분하다는 점도 강점이다. 구체적인 대응전략 마련도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군은 4월부터 식물원 조성 기본구상 용역에 착수, 식물원 유치에 대한 타당성과 입지여건 등을 분석하고 있다. 용역은 해남군의 산림현황과 여건 분석, 식생조사 등 차별화 전략을 마련해 해남만의 특성이 담긴 식물원 도입 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명현관 해남군수 등 군 관계자들도 최근 서울식물원과 아침고요수목원 등 우수사례를 견학하고, 에코식물원 해남유치 전략



명현관(오른쪽 두번째) 해남군수와 산림복지 담당 공무원들이 최근 서울식물원을 찾아 시설 등을 살펴봤다.

을 모색했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타 시군과 차별화된 식물원 조성계획 마련과 민관의 의지를 모

아 국립에코식물원의 해남유치를 이끌어 내겠다"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

이순신·진린 장군 400년 전 인연 국제교류 협력 강화

해남군·中 광둥성 옹원현 공동발전 모색

이순신·진린 장군의 400년 전 인연으로 맺어진 해남군과 중국 광둥성 옹원현이 국제 교류 협력 강화로 공동발전을 모색한다. 해남군은 옹원현의 초청으로 15일까지 4박 5일간 중국 광둥성 옹원현과 운안구를 방문. 양 도시 간 우호교류 방안을 논의한다. 1999년 국제 자매결연을 체결한 해남군

과 옹원현은 상호방문과 함께 매년 명량대첩 축제에 진린장군 후손 등을 초청해 교류하는 등 우호 협력을 이어오고 있다. 올해는 자매결연 20주년이 되는 해로 관 주도의 자매결연이 민간분야의 폭넓은 교류로 발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한다.

명현관 해남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김석순·김중숙 해남군의회 의원, 광동진시 문종 대표 등으로 구성된 방문단은 옹원현 현위위원회와 회담을 하고 공동발전과 민간 교류 확대 협력방안 등을 담은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양 도시는 앞으로 문화, 체육, 관광, 농업 등에서 교류협력을 상시화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민간분야 교류협력을 강화하고자 해남 쌀수출업체인 땅끝황토친환경영농법인과 옹원현 농가력제전문협동조합 및 덕재제

소전문협동조합간의 농업기술과 농산물 교류협력을 비롯해 탁구 친선경기, 합동문예공연 등도 한다. 옹원현은 정유재란(1597년 8월~1598년 12월) 당시 수군 도독으로 출병해 이순신 장군과 함께 왜군을 물리친 진린 장군의 출생지다. 진린 도독의 유지에 따라 후손들이 해남군 산이면 황조마을에 이주·정착해 광동진씨 집성촌을 이루고 있다. 황조마을에는 진린 장군의 사당인 황조별묘가 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

'대한민국 진도개 페스티벌' 개최

내달 4~5일 진도개 테마파크 일원...경주·장애물달리기 등

'대한민국 진도개 페스티벌'이 다음 달 4~5일 진도개 테마파크 일원에서 열린다. 진도군에 따르면 '또 하나의 가족 진도개의 내 친구'라는 주제로 열릴 축제에서는 애견 산책, 반려견 교감, 애견 공예품 만들기, 진도개 OX 퀴즈, 애견 캠퍼링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됐다. 진도개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진도개 공연·경주·장애물달리기(이절리티)·놀이뛰기·건강 달리기 등도 펼쳐진다. 축제장을 찾은 아이들과 부모들을 위한 쉽터도 확대·설치한다. 강아지 체험, 포토존을 운영하는 등 관광객의 동선에 최대한 맞춤 계획이다. 군 축제 개막을 앞두고 포스터(사진)도 확정했다.



천연기념물 제53호 진도개를 주제로 다양한 축제 프로그램을 개최이 미지를 전달하고, 축제에 모여 든 관광객의 모습을 화면에 배치해 누구나 축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축제의 주제에 맞게 사진을 하트 형태로 응용해 화면을 구성했다.

/진도=박현영 기자 hypark@

진도군,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만성신부전증·파킨슨병 등 951종으로 대상질환 확대

진도군 보건소는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의료비 지원 사업 신청을 받고 있다. 진도군은 진단과 치료가 어렵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희귀난치성 질환자들을 위해 지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예산 3억5500만원 투입해 168명의 희귀질환자의 의료비를 지원했다. 희귀·난치성질환자의료비지원사업은 해당 질환으로 진단받은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된 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재산 수준이 선정기준에 적합하면 보건소로 신청하면 된다. 특히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노인·중증 장애인(장애등급 1~3급)은 부양의무자가 기초연금수급자 또는 장애인연금수급자인

경우 소득·재산조사가 면제되는 등 더 많은 희귀·난치성질환자들이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대상 질환은 만성신부전증, 흉반성루프스, 파킨슨병 등 951종 질환으로 지난해(133종) 대비 7배 확대했다. 지원 항목은 ▲양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금 ▲보장구 구입비 ▲호흡보조기 및 기침발발기 대여료 ▲간병비 ▲특수식이(분유, 이유식, 환자식 등) 구입비 등이다. 진도군 관계자는 "이번 희귀·난치성질환자의 대상 질환이 대폭 확대되고 소득과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으로 희귀·난치성 질환 가구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 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진도=박현영 기자 hypark@



완도군, 해조류 센터 특산품 홍보관 '대변신'

미세먼지 배출 탁월 해조류 등 111종 진열 관람객 유치

완도군 해조류센터 특산품 홍보관(사진)이 미세먼지 배출에 탁월한 해조류 등을 진열하는 등 변신했다. 완도군에 따르면 군은 특산품 홍보관을 국제해조류박람회 주재관으로 사용한 해조류센터 4층에서 1층으로 옮기고 새롭게 정비했다. 4층은 관람객 접근성 부족으로 홍보 공간의 기능이 떨어졌다. 특산품 진열대에는 완도 지역 업체 등에서 가공·제조한 111종을 진열하고 있다. 해조국수, 켈프칩 등 해조류 상품 41종과 전복장 등 어패류 33종, 비파 와인, 황칠삼계탕 등 농축산물 25종, 후코이단, 톡탄 등 기능성 식품 12종이 비치돼 있다. 상품 진열대에는 생산 업체와 생산자의 인적 사항을 표기해 상품에 대한 신뢰와 판매 촉진을 도모하고 있다. 군은 이번 정비를 계기로 해조류센터 활성화도 꾀할 계획이다. 해조류센터 2층에는 해조류 이해와 해

조류 관련 산업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해조류 전시관이 있다. 센터 옥외 벽면에는 완도 사람들의 삶과 문화, 관광지 사진 등 시기별 테마에 맞춰 사진을 전시하는 치유갤러리가 설치돼 있다. 매년 초화류를 심었던 옥상 정원은 4월 중에 철거하고 5월까지 캐스케이드(치유의 폭포)를 설치할 계획이다. 야간 경관 조명 시설까지 더해지는 치유의 폭포가 완공되면 해조류센터가 관광명소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이송현 완도군 해양치유산업과장은 "해조류센터에는 완도의 미래를 이끌어갈 해양치유산업 콘텐츠 구성 등 다양하고 주제가 있는 전시물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관람객을 유치해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주재출판본부장

완도군 "어르신 한글 깨우쳐드려요"

교육부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 선정 국비 확보

완도군이 교육부가 주관하는 '2019년 성인문해교육 지원 사업'에 선정돼 국비 3800만원을 지원 받게 됐다. 성인문해교육 지원 사업은 비문해, 저학력 성인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문해교육 강사료, 문해교육 행사 체험비, 교재비 등의 운영비를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공모 사업이다. 대도시에 비해 잠재적 비문해 성인이 많은 농산어촌인 완도군은 지난달 15일 초등학교인정 성인문해교육 졸업식을 개최해 9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완도군은 공모사업 선정으로 성인문해교육을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한글을 배우지 못한 위축되고 불편한 삶을 살아온 어르신과 결혼이주민들이 보다 자신감 있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 할 계획이다. 한편 완도군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 연속 성인문해교육 지원 사업에 선정되었으며 성인문해교육 선도 지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주재출판본부장

그린궁 홈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